

2008년 7월 1말씀

목사들이 감각이 없습니다. 나를 한 번도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. 나를 직접 한 번이라도 보면 다릅니다-577. 나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납니다.

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. 90살 가까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도 그랬습니다. 평생 못 본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울쩍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들 잘 대해주라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. 부모가 안 돌아가신 사람은 잘 못 느낍니다.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들이 있으면 잘 털고, 일어나서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.

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하다가 목회 하고 싶으면 목회도 하고 하십시오. 목회 하는 것 쉽습니다. 목회가 최고입니다. 그리고 목회는 관리가 최고니까 관리를 하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. 관리만 할 줄 알면 목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나도 이렇게 큰 목회하기 전에 어린애들 데리고 관리하는 것 배웠습니다. 중고등학생 데리고 주일학교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관리법을 배운 것입니다.

월명동에 있는 돌들 잘 확인하고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.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. 외국인들도 올 것이니까 잘 대해주도록 하십시오. 우리가 외국 나가면 밥 먹고 싶듯이 외국인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그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도 잘 해서 주기 바랍니다. 빵 같은 것도 매점에서 팔기 바랍니다.

섭리 온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. 나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.

애들 잘 대해 주십시오.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못 해 준 게 한이 되기에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. 죽을 때 되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. 나는 무조건 잘 대해 주니까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나처럼 애들 관리하도록 하십시오. 무조건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. 작은 것도 굶으면 상처로 남게 됩니다. 그러니 애들 굶지 말고 끝까지 잘 대해 주어야합니다. 자기가 자신에게도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.

내가 그린 그림 못 보는 것도 한이 되니까 내가 많이 그려줄 것입니다.